

대인 간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 주 리†

본 연구는 대인 간 관용과 불관용을 구분하여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회적 바람직성, 공감(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사회신뢰, 제로섬 신념이 관용과 불관용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445명(남성 218명, 여성 227명)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 자료분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계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은 성별,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사회적 바람직성, 인지적 공감, 사회신뢰로 나타났고, 불관용은 사회적 바람직성,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제로섬 신념이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용과 불관용의 개념이 구분되며, 각각을 예측하는 요인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용을 높이기 위한 개입과 불관용을 낮추기 위한 개입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다문화·다양성 사회에서 현실적인 공존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관용, 불관용, 사회적 바람직성, 공감,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사회신뢰, 제로섬 신념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연구년 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20-3881).

† 교신저자: 정주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jjoeng@jnu.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재 한국사회는 다문화·다양성 사회로 미래에는 그 다양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게 예측된다. 본래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지역, 경제적 수준, 연령, 성별, 종교 등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까지도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강혜정, 임은미, 2021; 모경환, 황혜원, 2007). 다문화·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역시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강혜정, 임은미, 2021). 따라서 서로 다른 개인, 집단 간에 다양한 삶의 방식, 가치관,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개인 간, 집단 간 차이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거나 악화시켜갈 수 있는 심리사회적 기제 역시 존재한다.

많은 학자들은 그러한 기제의 하나로써 관용(tolerance)과 불관용(intolerance)에 주목하고 있다. Boghian(2017)은 현대 사회에서 관용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의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보편적 가치지만, 동시에 대립과 분열의 경향성이 뚜렷한 현대 사회 분위기와 가장 상충하는 가치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Verkuyten 등(2020) 역시 우리는 현재 매우 심각한 불관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타인과 타집단에 대한 불관용은 사회구성원들 간에 분리·긴장·적대감을 야기한다고 하였다(Verkuyten & Kollar, 2021). 이처럼 관용과 불관용은 다문화·다양

성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Cuadrado et al., 2021; Verkuyten & Killen, 2021). 그리고 인간은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용을 갖는 것이 다양성 사회에서 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김성현, 김성희, 2006; Vogt, 1997). 다시 말해, 관용은 문화특수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로 현재의 한국사회 역시 관용과 불관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용과 불관용의 개념

UNESCO(1995)의 선언문에서는 “관용은 우리 세계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과 표현의 형태, 그리고 인간됨의 방식에 대한 존중, 수용, 인정을 말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p. 71). 관용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됐으나, Hjern 등(2020)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관용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개관하여 관용의 정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을 제시하였다. 먼저, 편견과 관련하여 개인이 좋아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즉, 편견의 대상)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관용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Robinson et al., 2001). 그러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개인은 특정 집단의 관습, 가치, 행동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Dangubić 등(2021)의 연구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특정 이슬람 관습에 불관용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지 않거나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슬람 관습에 반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편견과 관용이 꼭 연관된 개념이 아닐 수 있음을 나타낸다(Cuadrado et al., 2021).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관용의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은 편견과 독립적으로 관용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에서는 관용을 개인이 자신과 다른 가치관, 행동,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의 자율성이나 권리를 방해하거나 막지 않고 이들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Cohen, 2004; Verkuyten, & Killen, 2021).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문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너무 이질적인 대상에 대해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다른 대상을 향해 호불호 감정을 갖는 것은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의 영역으로 외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타인과 타집단에 대한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그 대상의 권리를 억압하고 위협을 가하려는 행동은 개인 간, 집단 간 갈등·차별·억압을 야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관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용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tolerance의 라틴어 어원인 tolerantia 뜻이 견디다, 참다, 극복하다를 나타낸다(Belasheva, & Petrova, 2016). 이처럼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 존재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제지하거나 방해할 기회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 대상을 향한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부정적 행위를 억제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라고 볼

수 있다(김성현, 김성희, 2006; 김성현, 김성희, 2007; 김용환, 1997; 김용환 외, 2019; Belasheva, & Petrova, 2016; Boghian, 2017; King, 2012). 다시 말해, 관용은 차이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타인을 향해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인내적 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의 두 번째 개념 정의에 비춰서 생각해볼 때, 불관용은 단순히 관용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Verkuyten와 Kollar(2021)는 관용과 불관용에 대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을 정리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s)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관용은 인내, 자제, 관대함, 수용과 관련되고, 불관용은 편견, 편협함, 차별과 관련(관용의 첫 번째 개념)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관용과 불관용이 정확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용과 불관용 모두 개인이 타인이나 타집단에 대해 싫어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Verkuyten & Kollar, 2021), 불관용은 이러한 심리적 반응을 자신이나 내집단에 대한 위협(Wang & Chang, 2006)으로 인식하여 낮설거나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 편협함을 공고히 하게 한다. 반면, 관용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을 자제(self-restraint)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Verkuyten & Yoggeswaran, 2017). 즉, 관용과 불관용의 관계는 단순히 반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통의 개념(예: 편견)을 서로 다른 방향(예: 자제 vs. 공고화)으로 공유하면서도 차별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관용과 불관용의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다를 수 있다. 즉, 관용과 불관용

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존재하지만, 관용과 불관용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용은 편견을 자제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이, 불관용은 편견을 공고히 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이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용과 불관용을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없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관용만을 측정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한 후,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관용과 불관용을 구분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파악하고자 한다.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선,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접촉이론(Contact Theory)에서 이론적 배경을 찾고자 한다. 접촉이론은 본래 Allport(1954)가 제안한 이론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집단 간 동등한 지위, 공통의 목표, 집단 간 협력, 권위자의 지지라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집단 간 접촉이 최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접촉의 최적의 결과로 집단 간의 편견이 감소하고, 상대 집단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관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Rapp & Freitag, 2015). Rapp와 Freitag(2015)는 접촉이론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여러 집단과 꾸준히 접촉해나가는 사람들일수록 관용적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Pettigrew(1998)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이 어느 조건(when)에서 접촉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떻게(how) 그리고 왜(why)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수정된 집단 간 접촉이론을 제안하였다.

Pettigrew(1998)가 수정하여 제안한 접촉이론에서는 공감과 불안을 접촉의 긍정적 변화, 즉 관용의 확장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용은 관대함이나 너그러움으로도 여겨지는 데 이는 관용이 자신과 다른 다원성의 영역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를 인내하기 때문이다(김성현, 김성희, 2006; 김용환, 조영제, 1999).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대함이나 너그러움을 반영하는 공감 능력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행동의 자제를 나타내는 관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tson 등(1997)은 일련의 실험연구를 통해 타인,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낙인이 찍혔거나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하는 타인에게 느끼는 공감 수준을 높이면 그 집단 전체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Batson 등(1997)은 외집단에 대한 태도 자체를 직접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외집단에 속한 한 개인에 대해 공감함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Reich와 Purbhoo(1975) 역시 집단 간 접촉 과정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볼수록, 개인의 관용 수준이 올라감을 확인하였다. 즉, 상대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에 대해 공감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감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신뢰 수준도 관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잘 알지 못하고 정

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사회신뢰(social trust)라고 지칭한다(Herreros, 2004). Rydgren 등(2013)도 접촉이론에 근거한 연구를 통해 이라크 내에서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도시 중에서 인종 갈등이 심하고 서로 간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치하는 도시와 비교적 갈등이 적고 평화로운 지역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두 지역에서 사회신뢰와 관용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신뢰는 관용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집단 간 갈등이 심하고 폭력적인 사회, 즉, 불관용적인 사회에서 사회신뢰와 관용 간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Rydgren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신념이나 가치관, 문화 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이타적이고 공정한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이들을 수용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크고, 반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들에 대해 더욱 배타적이고 편견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면 이용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기 어려울 것이다(정주리 등, 2015; Gilbert et al., 2011). 불안은 낮은 사람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처음 접할 때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다(Stephan, 2014). 불안은 위협감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Devine et al., 1996). Gilbert 등(2011)은 자비불안 모델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타인으로부터 자비를 얻거나,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타인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적다. 아직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과 관용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지만 최근 Crimston 등(2022)은 자비불안이 도덕적 확장성을 제한함을 밝혔다. 즉, 자비불안을 가질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경계선을 매우 좁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한된 도덕적 경계는 자신의 경계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생각이나 가치, 신념 등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자비불안은 편견을 공고히 함으로써 관용 수준을 낮추고, 불관용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과 비슷한 맥락에서 관용 수준, 불관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변인도 존재한다. 바로 타인과 외집단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로섬 신념이 그것이다. 제로섬 신념(zero-sum belief)은 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누군가의 이득이 다른 누군가의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Rózycka-Tran et al., 2015). 이러한 제로섬 신념은 행복이나 권리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만약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나 권리의 양이 제한적이라고 믿는다면, 타인의 행복이나 권리를 자신의 손해, 불이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구자영, 서은국, 2007). 따라서 제로섬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인식하고, 외집단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자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정주리, 2021; Rózycka-Tran et al., 2015). 따라서 강한 제로섬 신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이나 외집단에

경쟁자로 인식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내어 낮은 관용, 높은 불관용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접촉이론, 자비불안 모델, 제로섬 신념 모델과 같은 이론적 배경들과 이러한 이론에 바탕으로 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으며,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에게 자비심을 갖는데 불안해하지 않으며, 제로섬 신념이 약하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끼더라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억제하고, 차이를 수용하며, 상대의 권리를 존중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대로 공감능력이 낮으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불안해하며, 제로섬 신념이 강하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이들에게 부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관용과 불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변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반응 편파(Moorman & Podsakoff, 1992)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반응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방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Paulhus, 2002). 일반적으로 관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로, 불관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인식되기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더 관용적인 사람으로, 불관용적이지 않은 사람

으로 나타내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은 응답자 반응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나타내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등 자료를 왜곡시키거나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배병훈, 2015; Rubin & Babbie,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제외한 후, 사회신뢰, 공감,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제로섬 신념이 관용과 불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성별, 연령, 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역시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탐색적인 차원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도 함께 통제하고자 한다.

관용은 이미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것보다도 구분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키우는 것보다도 다르다 (Vogt, 1997). 그러나 최소한 다른으로 인해 차별하거나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관용은 다문화·다양성 사회 속에서 공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김성현, 김성희, 2006). 따라서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용 수준을 높이고, 불관용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이다.

연구문제 1. 관용과 불관용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공감, 사회신뢰,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제로섬 신념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고 관용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3. 공감, 사회신뢰,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제로섬 신념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고 불관용을 예측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040198-211118-HR-162-01).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하였고,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패널로 등록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연구에 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들만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리서치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536 명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중복응답하거나 특정값으로 응답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을 자료에서 제거하고 445명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불성실한 응답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설문조사 응답 시간이 통제되지 않고 단순히 설문조사를 완성하기만 하면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여자들이 일부 존재했다고 추측된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9.89세 ($SD=12.14$)였고, 최소 연령은 20세, 최고 연령은 64세였다. 성별로 남성 218명(49.0%), 여성 227명(51.0%)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112명(25.2%), 30대 111명(24.9%), 40대 108명(24.3%), 50대 이상 114명(25.6%)이었다. 거주지역 별로

는 서울 130명(29.2%), 경기지역 149명(33.5%), 강원지역 11명(2.5%), 충청지역 39명(8.7%), 경상지역 87명(13.5%), 호남/제주지역 29명(6.4%)이었다. 이들의 학력은 초/중학교 졸업 2명(.4%), 고등학교 졸업 77명(17.3%), 대학교 재학 32명(7.2%), 대학교 졸업 283명(63.6%), 대학원 재학/졸업 51명(11.5%)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수준(SES)은 7점 리커트 척도(1: 평균보다 훨씬 낮다~7: 평균보다 훨씬 높다)에 평균 3.76($SD=1.061$)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대인 간 관용

Thomae 등(2016)은 대인관계 맥락에서 관용(warm tolerance), 불관용(cold tolerance/intolerance), 관용 한계(limits of tolerance)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한 대인 간 관용 척도(Interpersonal Tolerance Scale: IPTS)를 개발하였다. 관용은 총 13문항, 불관용은 12문항, 관용 한계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척도(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한다. Thomae 등(2016)이 보고한 관용과 불관용 요인 간 상관은 $-.58(p<.001)$ 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관용은 공감,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동기, 사회 신뢰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권위주의 및 사회 지배 성향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불관용은 공감,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동기, 사회 신뢰와는 부적 상관, 권위주의 및 사회 지배 성향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 공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Thomae et al., 2016). 본 연구를 위해 원 저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관용과 불관용을 측정하기 위해 IPTS 관용과 불관용 요인을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미

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심리 전공 교수 2인이 독립적으로 영문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한 후,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문항을 선택하였고, 번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상담 전공 교수로부터 번안된 문항이 원문을 충실히 담아 내면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안되었는지를 검토받았다. Thomae 등(2016)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을 단일요인으로 고정하여 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IPTS 관용 요인의 경우 13문항 모두 요인부하량이 .30를 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관용 요인의 10번 문항(“나한테 중요한 규범을 위반하는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불쾌하게 느껴진다”)은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관용은 수용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까지 수용하는 과장된 방종과는 구분되기에(Boghian, 2017), 수용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 불관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항에서 규범(norm)이 법이나 규칙으로 이해되면 이를 어기는 것을 불쾌해하는 것은 불관용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

표 1. 관용 요인 문항 내용 및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 부하량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
5. 다른 사람의 신념과 내 신념이 부딪한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69	.87
3.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이 나의 가치관과 상충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5	.87
4. 상대방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해도 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포용한다.	.65	.87
9.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온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5	.87
2. 다른 사람이 잘못 행동하거나 의아하게 행동한다고 내가 느낄 때, 나는 그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2	.87
11.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나는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62	.87
12. 나는 타인의 신념 및 행동과 관계없이, 항상 그 사람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61	.87
6. 나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0	.87
13. 나는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인다.	.59	.87
1. 나는 사람들 간의 의견, 신념의 차이를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본다.	.55	.87
10. 나는 대체로 어떤 일에 대한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믿는다.	.54	.87
7. 설령 내가 새롭고 낯선 것을 싫어하더라도 그 존재는 인정할 수 있다.	.53	.87
8.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이 도출되면 나는 내 의견을 재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53	.87
아이젠값	5.36	.88
분산(%)	41.23	

표 2. 불관용 요인 문항 내용 및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 부하량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
7. 나는 나와 매우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71	.76
6. 나는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한다.	.67	.76
8. 내가 개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어렵다.	.66	.76
5. 나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56	.76
1.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의견, 가치관, 신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54	.76
4.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어렵다.	.47	.77
3. 나는 종종 첫인상으로 남을 판단한다.	.41	.78
12. 누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아볼 것이다.	.41	.78
9. 누군가 내가 허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38	.78
11. 나는 누군가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참기 어렵다.	.38	.78
2. 나는 나의 가치관이 다른 대부분 사람들의 가치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한다.	.34	.78
10. 나한테 중요한 규범을 위반하는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불쾌하게 느껴진다.	.29	.79
아이젠값	3.72	
분산(%)	30.97	.79

주. 불관용 요인 10번 문항은 낮은 요인부하량 때문에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다고 판단하여 이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1문항만을 불관용 요인에 포함시켰다. 한국어 문항의 내용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관용), 표 2(불관용)에 제시하였다. Thomae 등(2016)이 보고한 관용의 내적합치도는 .82, .86이었고, 불관용은 .83,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관용의 내적합치도는 .88이었고, 불관용의 내적합치도는 .79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선행연구(배정은 등, 2010; Butrus & Witenber, 2013)를 참고하여 Davis(1994)가 개발하고, 박성희(1997)가 번안한 대인관계반응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에서 인지적 공감은 조망 취하기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관심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조망 취하기는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의 관점과 입장을 수용하는 능력이나 경향성을 측정하고(예시 문항: “나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공감적 관심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염려 등의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측정한다(예: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그를 염려하는 따뜻한 감정이 일어난다”). 두 하위요인 모두 7문항을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

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망 취하기의 내적합치도는 .70이고 공감적 관심은 .67이었다.

사회신뢰

사회신뢰는 Reeskens와 Hooghe(2008)가 European Social Survey(ESS)에서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3문항을 전유정(2016)이 번안, 수정한 것을 재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만 있다면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공정하게 대하는 편입니까?”로 각각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원 척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묻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자신과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자신과 문화적 배경, 가치관, 신념이 다른 사람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내적합치도는 .71이었다.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은 Gilbert 등(2011)이 개발하고 정주리 등(2015)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자비불안 척도(Fear of Compassion Scale: FCS) 중에서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fear of compassion for others)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척도(문항 예시: “너무 쉽게 남을 용서해주거나 자비심이 넘치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다”)는 10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3으로 나타났다.

제로섬 신념

Rózycka-Tran 등(2015)이 처음의 12개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가, 척도 타당도를 개선하면서 8문항을 축약한 제로섬 신념(Belief in a Zero-Sum Game: BZSG) 척도를 정주리(2021)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예시는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다. 이 척도는 7점 척도로 측정하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을 위해 Stöber(2001)가 개발하고 배병훈 등(2015)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ocial Desirability Scale)을 사용하였다. 배병훈 등(2015)은 본래 16문항인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9문항으로 축약하였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때때로 나의 불쾌한 기분을 남들에게 푼다”와 같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고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5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내적합치도가 .6보다 낮으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Taber(2016)은 .58 이상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시하였다.

분석방법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 후 관용에 영

향을 주는 요인과 불관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결 과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먼저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살펴봤을 때, 관용은 불관용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r=-.33$) 나타냈다. 또한, 관용은 학력($r=.14$), SES($r=.19$), 사회적 바람직성($r=.48$), 인지적 공감($r=.51$), 정서적 공감($r=.34$), 사회신뢰($r=.43$)와 정적 관계, 그리고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r=-.15$), 제로섬 신념($r=-.11$)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불관용은 성별($r=-.10$), 사회적 바람직성($r=-.39$), 인지적 공감($r=-.26$), 정서적 공감($r=-.20$), 사회신뢰($r=-.16$)와는 부적 관계를,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r=.29$)과 제로섬 신념($r=.36$)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산출했을 때, 관용은 불관용($r=-.17$), 성별($r=-.10$)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학력($r=.16$), SES($r=.18$), 인지적 공감($r=.33$), 정서적 공감($r=.14$), 사회신뢰($r=.32$)와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관용과 연령($r=-.02$),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r=-.05$), 제로섬 신념($r=-.03$)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관용의 경

표 3.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값($n=445$)

	1	2	3	4	5	6	7-1	7-2	8	9	10	11
1. 관용		-.17**	-.10*	-.02	.16**	.18**	.33**	.14**	.32**	-.05	-.03	
2. 불관용	-.33**		-.03	.02	-.01	.04	-.05	-.01	-.03	.22**	.31**	
3. 성별	-.01	-.10*		-.04	-.02	.02	.08	.14**	-.02	.10*	-.11*	
4. 연령	.03	-.02	-.02		.16**	-.09	.09	.17**	-.02	.00	-.02	
5. 학력	.14**	-.01	-.02	.16**		.20**	.16**	.07	.12*	-.04	-.09	
6. SES	.19**	.01	.03	-.08	.20**		.14**	.07	.13**	-.09	-.06	
7-1. 인지적 공감	.51**	-.26**	.16**	.13**	.14**	.15**		.33**	.26**	-.01	-.04	
7-2. 정서적 공감	.34**	-.20**	.20**	.20**	.06	.10*	.52**		.12*	-.05	-.12*	
8. 사회신뢰	.43**	-.16**	.04	.01	.12*	.15**	.39**	.26**		-.23**	-.14**	
9.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15**	.29**	.05	-.03	-.04	-.10*	-.14**	-.16**	-.29**		.40**	
10. 제로섬 신념	-.11*	.36**	-.14**	-.04	-.09	-.07	-.13**	-.19**	-.19**	.42**		
11. 사회적 바람직성	.48**	-.39**	.17**	.10*	.00	.07	.57**	.49**	.34**	-.24**	-.19**	
평균	4.78	3.93	1.51	39.89	3.68	3.76	3.32	3.29	4.45	3.39	3.60	3.26
표준편차	.73	.74	.50	12.14	.91	1.06	.49	.49	.90	.61	.87	.44

* $p<.05$, ** $p<.01$

주. 성별은 남자가 1, 여자가 2로 코딩되었음. 대각선 아래는 Pearson 상관계수이고, 대각선 위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된 편상관계수임.

우,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r=.22$)과 제로섬 신념($r=.31$)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성별($r=-.03$), 연령($r=.02$), 학력($r=-.01$), SES($r=.04$), 인지적 공감($r=-.05$), 정서적 공감($r=-.01$), 사회신뢰($r=-.03$)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연구변인들이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Durbin-Watson 계수는 2.013이고, VIF 값은 1.002~1.806이어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고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SES)만을 예측변인으로 포함하였을 때, $F(4, 440)=5.772, p<.001,$

$R^2=.050$ 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추가로 예측변인으로 포함하였을 때, $F(5, 439)=33.131, p<.001, R^2=.274, \Delta R^2=.224$ 이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다문화 수용성, 사회신뢰,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제로섬 신념,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을 예측변인으로 추가하였을 때, $F(10, 434)=27.381, p<.001, R^2=.387$ 으로, $\Delta R^2=.113$ 이었다. 최종 회귀모형에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관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112, p<.01$), SES($\beta=.089, p<.05$), 사회적 바람직성($\beta=.258, p<.001$), 인지적 공감($\beta=.265, p<.001$), 사회신뢰($\beta=.220, p<.001$)로 나타났고, 연령($\beta=-.047, p>.05$), 학력($\beta=.068, p>.05$), 정서적 공감($\beta=.040, p>.05$),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beta=.031, p>.05$), 제로섬 신념($\beta=.003, p>.05$)은 관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성별(남=1, 여=2)	-.014	-.009	-2.00	-.132	-.091	-2.193	-.163	-.112	-2.838**
연령	.001	.025	.523	-.002	-.029	-.701	-.003	-.047	-1.192
학력	.085	.105	2.183*	.096	.118	2.806**	.055	.068	1.723
SES	.121	.175	3.672**	.094	.137	3.260**	.061	.089	2.260*
사회적 바람직성				.806	.484	11.641**	.429	.258	5.273**
인지적 공감							.396	.265	5.245**
정서적 공감							.060	.040	.854
사회신뢰							.179	.220	5.126**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038	.031	.720
제로섬 신념							.002	.003	.067
R^2		.050			.274			.387	
ΔR^2					.224			.113	

* $p<.05$, ** $p<.01$

표 5.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odel 1			Model 2			Model 2		
	<i>b</i>	β	<i>t</i>	<i>b</i>	β	<i>t</i>	<i>b</i>	β	<i>t</i>
성별(남=1, 여=2)	-.142	-.096	-2.022*	-.045	-.030	-.678	-.019	-.013	-.294
연령	-.001	-.017	-.347	.002	.027	.603	.002	.030	.690
학력	-.010	-.012	-.239	-.018	-.022	-.495	.004	.036	.100
SES	.008	.012	.240	.030	.043	.954	.044	.063	1.467
사회적 바람직성				-.662	-.393	-8.774**	-.523	-.311	-5.766**
인지적 공감							-.128	-.085	-1.520
정서적 공감							.073	.048	.934
사회신뢰							.032	.039	.815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144	.119	2.470*
제로섬 신념							.217	.256	5.461**
R^2		.010			.157			.254	
ΔR^2					.148			.097	

* $p < .05$, ** $p < .01$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Durbin-Watson 계수는 2.168이고, VIF 값은 1.002~1.806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표 5에 제시한 것처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만 예측변인으로 포함하였을 때, $F(4, 440)=1.069$, $p > .05$, $R^2=.010$ 이었고, 다음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불관용의 예측변인으로 추가해서 포함하였을 때, $F(5, 439)=16.400$, $p < .001$, $R^2=.157$, $\Delta R^2=.148$ 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연구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추가하였을 때, $F(10, 434)=14.810$, $p < .001$, $R^2=.254$, $\Delta R^2=.097$ 이었다. 최종 회귀모형에서 불관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바람직

성($\beta = -.311$, $p < .001$),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beta = .119$, $p < .05$), 제로섬 신념($\beta = .256$, $p < .001$)으로 나타났고, 성별($\beta = -.013$, $p > .05$), 연령($\beta = .030$, $p > .05$), 학력($\beta = .036$, $p > .05$), SES($\beta = .063$, $p > .05$), 인지적 공감($\beta = -.085$, $p > .05$), 정서적 공감($\beta = .048$, $p > .05$), 사회신뢰($\beta = .039$, $p > .05$)는 불관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Pettigrew(1998)가 제안한 집단 간 접촉이론의 변화 과정 요인을 참고하여 공감, 사회신뢰,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제로섬 신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인구통

계학적 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먼저, 관용과 불관용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관용과 불관용은 부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두 변인의 관계는 Cohen(1977)의 기준으로 보면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33)였고,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17로 줄어들었다. Thomae 등(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서양 문화권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보고한 두 변인 간 상관관계수 -.58와 비교해볼 때, 우리 문화권에서 관용과 불관용 간의 관련성 정도가 서양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Thomae 등(2016)의 연구에서 나타난 관용과 불관용 관계의 효과 크기 차이는 반대되거나 모순된 것으로 여겨지는 개념인 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의 인식 차이를 반영할 것일 수 있다.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사고를 동시에 갖는 변증법적 사고가 더 흔하고, 이러한 변증법적 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mamura et al., 2008; Peng & Nisbett, 1999).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관용과 불관용 수준의 관계는 부적관계이기는 하지만, 맥락과 상황에 따라 관용과 불관용의 부적 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2018년에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난민의 국내 입국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불관용적인 모습을 나타냈으나(강진구, 이기성, 2019),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2021년에 국내 입국

한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우호적인 여론을 보이며 관용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도(연합뉴스, 2021, 8, 30) 상황과 맥락에 따른 관용과 불관용 간의 변증법적 사고의 공존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관용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용에는 성별, SES,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과 함께, 인지적 공감, 사회신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용에 대한 연령, 학력, 정서적 공감,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제로섬 신념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관용을 정적으로 예측한 것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개념에 비취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관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이자 태도로 다문화·다양성 사회에서 관용은 더욱 장려된다(Boghian, 2017). 그렇기에 자신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타인에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욕구나 성향을 나타내는 사회적 바람직성(Stöber, 2001)이 높을수록 자신의 관용 수준을 높게 인식하여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 관용에 관한 자기보고식 측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고 살펴본 선행연구가 별로 없었지만 Brown-Iannuzzi 등(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반영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할 경우, 이러한 편향이 덜 반영되는 간접적인 방식보다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여 사회적 바람직성과 자기보고식 관용 수준이 관련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인지적 공감이 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정서적 공감과 타인을 향한 자비불

안은 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는 관용의 성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Boghian, 2017). 관용은 자신의 신념, 고정관념, 선입견을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성찰함으로써 다른 생각이나 의견, 다양한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Boghian, 2017). 이러한 관용의 성찰적 특성으로 인해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부정적 행위를 억제한다고 여겨진다(김성현, 김성희, 2007; 김용환 외, 2019; Belasheva, & Petrova, 2016; Boghian, 2017; Verkuyten & Yoggeswaran, 2017). 따라서 일차적이고 즉각적인 반응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인지적 공감은 관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여겨진다. 반면, 정서적 공감이나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은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에 가깝기에 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는 Batson 등(1997)이 실험연구를 통해 공감이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공감 조건에서 참여자들에게 타인이 어떤 경험을 하고 느꼈을 지에 대해 상상해보도록 함으로써 인지적 공감을 조작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고 여겨져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사회신뢰가 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는 접촉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관용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한 Pettigrew(1998)의 집단 간 접촉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Rydgren

등(2013)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인종 간 갈등이 심한 이라크 지역에서 사회신뢰, 타인종에 대한 신뢰, 타인종과의 우정, 관용이 서로 정적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록 타인이 자신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의, 공정성 등을 신뢰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관용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제로섬 신념은 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인 관계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개인 간, 집단 간 경쟁으로 인식하는 제로섬 신념이 강한 경우(Rózycka-Tran et al., 2015) 이후에 논의할 편견, 폐쇄성을 공고히 하는 것과 관련된 불관용과 연관이 크고, 억제 및 자제와 관련된 관용(Verkuyten & Yoggeswaran, 2017)과는 연관이 작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성별과 SES가 관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성별의 경우, 본 연구의 최종 모형에서 관용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일 경우 관용 수준이 더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소수집단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정치적 관용을 베푸는 데 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lebiowska, 1999).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만을 예측변인으로 포함시켰을 때는 성별이 관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다른 연구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성별의 영향력이 유의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성별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정적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높은 사회적 바람

직성을 나타냈고, 상관분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에는 성별은 관용과 부적관계를 나타내 남성이 여성보다 관용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처럼 성별과 관용의 관계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다른 변인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별과 관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해석보다는 다른 변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관용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기에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 결과를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인지적 공감과 사회신뢰와 정적 관계를 가지며, 이 관계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 정주리(2021)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신뢰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인지적 공감과 사회신뢰는 모두 관용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즉,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인지적 공감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관용 역시 정적으로 예측한 것일 수 있다. 이는 자기 이익 가설(Self Interest Hypothesis)에 기초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현존하는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정주리, 이지혜, 2022; Curtis & Andersen, 2015). 따라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낙관적 믿음에 기초해서 타인에게 베푸는 관용 수준도 높을 수 있다고 추측된다.

관용과 마찬가지로 불관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 제로섬 신념이 불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이 연구에서 살펴본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사회신뢰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erkuyten 등(2020)은 불관용은 경직성, 폐쇄성과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불관용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관용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즉, 사회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이자 특성인 사회적 바람직성은 사회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경직성, 폐쇄성을 포함하는 불관용 수준을 부적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인지적 공감이 불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이 불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한 것과 관련하여 불관용이 타집단의 신념과 관습에 대한 직관적인 거부반응일 수도 있다고 한 Verkuyten 등(2020)의 주장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불관용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반응과 관련되기에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인지적 작업을 필요로 하는 인지적 공감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이질적인 사람과 집단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반응은 이들을 향한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불편함,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이들에 대해 갖는 편견과 폐쇄성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실제 김성민과 민영(2021)의 연구에서도 난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는 분노와 두려움을 매개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정치참여 의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불관용이 자신의 도덕적 원칙과 가치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숙고반응일 수도 있다 (Verkuyten et al., 2020). Crimston 등(2022)이 보고한 것에 따르면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은 개인의 도덕적 경계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서 자신의 도덕적 경계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표현이나 행동을 공고히 하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불관용을 예측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정서적 공감에 불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본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Butrus와 Witenberg(2013)의 연구에서는 다른 인종적 배경을 이유로 누군가 불관용적인 신념을 나타내며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물었을 때, 정서적 공감은 불관용을 나타내는 언어표현과 행동에 반대하는 것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정서적 공감의 영향에 관한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두 연구 간에 변인 측정 방법과 통제 변인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Butrus와 Witenberg(2013)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거기서 벌어지는 불관용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불관용을 나타내는 특성에 대한 진술문에 대해 자신의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Butrus와 Witenberg(2013)의 연구와 달리,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여 이를 통제된 후 정서적 공감의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연구 방법에 따른 차이인지를 후속연구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불관용에 대한 제로섬 신념의 유의한 영향

과 관련해서는 대인 간 관용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선행연구에서 삶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즉 제로섬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갈등과 불관용 수준은 높아지고, 정치적 관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dai & Ongis, 2019; Wang & Chang, 2006). 현실적 갈등 이론을 제시한 Sherif(1966)는 다른 사람을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상대로 인식하게 되면 상대에 대해 적개심을 느끼고 이들에게 편견을 가짐으로써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로섬 신념은 타인과 타집단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타인과 타집단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귀인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을 공고함으로써 불관용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사회신뢰가 불관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는 낮은 타인을 신뢰할수록 관용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불관용 수준이 높아지는 않음을 나타낸다. Rydgre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와 관용만을 측정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하지만 Rydgre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인종 간 갈등이 더 큰 지역이나 타인종 친구가 없는 경우, 사회신뢰와 관용 간의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신뢰와 관용 간의 관계를 사회적 갈등 수준이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이미 한국사회는 다양성 사회에 진입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다양성은 확대되어 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이와 차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

적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강혜정, 임은미, 2012) 불관용적인 태도를 줄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차이를 받아들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행동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차이를 인식하고, 그러한 차이에 불편감이나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적 불편감과 부정적 감정을 견디고,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향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게 하는 관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직성과 폐쇄성, 편견을 바탕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공고화해나가는 불관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모색하여 차이를 둘러싼 개인과 집단 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관용과 불관용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별적임을 확인하였다. 관용과 불관용은 개념적으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차별적인 부분도 존재한다(Verkuyten & Kollar, 2021). 그러나 국내외에서 관용이나 불관용에 관한 연구를 할 때, 관용만을 측정하거나 불관용만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예: 김성현, 김성희, 2006; Rydgren et al., 2013). 심지어 관용과 불관용 척도를 구분하여 개발한 Thomae 등(2016)조차도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불관용 요인을 역산하여 하나의 관용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적어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두 요인을 구분해

서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불관용과 관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관용 수준을 높이려는 접근이나 불관용 수준을 낮추려는 한 가지 방향의 접근보다는 관용과 불관용 모두에 개입하는 복합적인 기제를 간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공감과 사회신뢰를 높이는 방안과 불관용에 영향을 주는 타인을 향한 자비불안과 제로섬 신념에 개입하는 방안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것 역시 중요한 의의라고 여겨진다. 관용과 불관용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부여된 개념을 자기보고식 측정을 통해 연구할 때는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배병훈 등, 2015) 관용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변인들 간의 관계의 강도나 관계 유의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추후 연구에서도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면서 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관용과 불관용을 포함한 연구변인을 자기보고식 횡단적 설문조사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비록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자기보고식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활용한 연구나 실험연구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Pettigrew(1998)가 수정제안한 접촉 이론의 과정변인 중 일부만을 확인하였다. Pettigrew(1998)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정서를 일으키는 변인 외에도 타집단에 대한 학습, 행동 변화, 내집단 재평가를 과정변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관용과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용이나 불관용이 성격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사회인지적 요인으로 봐야 할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관용과 불관용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장진구, 이기성 (2019).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 *다문화콘텐츠 연구*, 30, 103-135.
- 강혜정, 임은미 (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3(4), 35-57.
- 구자영, 서은국 (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9.
- 김성민, 민 영 (2021). 고정관념과 오정보 수용이 난민 반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노와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6(4), 103-143.
- 김성현, 김성희 (2006). 관용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7(2), 215-229.
- 김성현, 김성희 (2007). 관용성 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상담학연구*, 8(3), 793-806.
- 김용환 (1997). *관용과 열린사회*.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용환, 김성호, 김성환, 김은주, 박삼열, 이경희, 이재영, 임건태 (2019). 혐오를 넘어 관용으로-관용: 혐오주의에 대항하는 윤리. *과주: 서광사*.
- 김용환, 조영제 (1999). 관용을 위한 가치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0, 51-80.
- 모경환, 황혜원 (2007). 중등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9(3), 79-100.
- 박성희 (1996). *공감과 친사회 행동*. 서울: 문음사.
-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77-197.
- 배정은, 신희천, 이민규 (2010). 원만성이 용서동기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 과정. *상담학연구*, 11(1), 111-123.
- 연합뉴스 (2018, 8, 30). 아프간 협력자 장기체류 허용...공감 68% 비공감 28%.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0014300001>.
- 전유정 (2016). *범죄뉴스의 선정성과 책임귀인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주리 (2021).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

- 제, 27(3), 285-303.
- 정주리, 김은영, 최승애, 이유정, 김정기 (2015). 한국판 자비불안 척도들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81-903.
- 정주리, 이지혜 (202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 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2), 219-239.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 Wesley.
- Batson, C. D., Polycarpou, M. P., Harmon-Jones, E., Irnhoff, H. J., Mitchener, E. C., Bednar, L. L., Klein, T. R., & Highberger, L.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s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105-118.
- Belasheva, I. V., & Petrova, N. F. (2016). Psychological stability of a personality and capability of tolerant interaction as diverse manifestations of tole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 Science Education*, 11(10), 3367-3384.
- Boghian, I. (2017). A psycho-pedagogical approach to the concept of tolerance. *Journal of Innovation in Psychology, Education and Didactics*, 2(1), 97-110.
- Brown-Iannuzzi, J. L., Najle, M. B., & Gervais, W. M. (2018). The illusion of political tolerance: Social desirability and self-reported voting preferenc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0(3), 364-373.
- Butrus, N., & Witenberg, R. T. (2013). Some personality predictors of tolerance to human diversity: The roles of openness, agreeableness, and empathy. *Australian Psychologist*, 48, 290-298.
- Cohen, A. J. (2004). What toleration is. *Ethics*, 115(1), 68-95.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ural sciences*. New York, NY: Academic Press.
- Crimston, C. R., Blessing, S., Gilbert, P., & Kirby, J. N. (2022). Fear leads to suffering: fears of compassion predict restriction of the moral bounda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1(1), 345-365.
- Cuadrado, I., Ordóñez-Carrasco, J. L., López-Rodríguez, L., Vázquez, A., & Bramvilla, M. (2021). Tolerance towards differences: Adaptation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panish version of a new measure of tolerance and sex-moderated relations with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4, 220-232.
- Curtis, J., & Andersen, R. (2015). How social class shapes attitudes on economic inequality: The competing forces of self-interest and legitim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Research*, 5(1), 4-19.
- Dangubić, M., Verkuyten, M. & Stark, T. H. (2021). Understanding (in)tolerance of Muslim minority practices: a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7(7), 1517-1538.
- Davidai, S. & Ongis, M. (2019). The politics of zero-sum 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deology and the belief that life is a zero-sum game. *Science advances*, 5(12), 1-20.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Devine, P. G., Evett, S. R., & Vasquez-Suson, K. A. (1996). Exploring the interpersonal dynamics of intergroup contact.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pp. 423-464). New York: Guilford.
- Gilbert, P., McEwan, K., Matos, M., & Ravis, A. (2011). Fears of compassion: Development of three self-report measure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4(3), 239-255.
- Golebiowska, E. A. (1999). Gender gap in political tolerance. *Political Behavior*, 21(1), 43-66.
- Hamamura, T., Heine, S. J., & Paulhus, D. L. (2008). Cultural differences in response styles: The role of dialectical thin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4), 932-942.
- Herreros, F. (2004). *The problem of forming social capital: Why tru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jerm, M., Eger, M. A., Bohman, A., & Connolly, F. F. (2020).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tolerance: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acceptance, respect, and appreciation of differ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7(3), 897-919.
- King, P. (2012). *Toleration*. London: Routledge.
- Moorman, R. H., & Podsakoff, P. M. (1992). A meta-analytic review and empirical test of the potential confounding effects of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sets in organizational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5(2), 131-149.
- Paulhus, D. L. (2002).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The evolution of a construct. In H. Braun, D. N. Jackson, & D. E. Wiley (Eds.), *The role of constructs i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measurement* (pp. 67-88). Hillsdale, NJ: Erlbaum.
- Peng, K., & Nisbett, R. E. (1999). Culture, dialectics, and reasoning about contradiction. *American Psychologist*, 54(9), 741-754.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Rapp, C., & Freitag, M. (2015). Teaching tolerance? Associational diversity and tolerance formation. *Political Studies*, 63(5), 1031-1051.
- Reeskens, T., & Hooghe, M. (2008). Cross-cultural measurement equivalence of generalized trust: Evidence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2002 and 2004). *Social Indicators Research*, 85(3), 515-532.
- Reich, C., & Purbhoo, M. (1975). The effect of cross-cultural contact.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7(4), 313-327.
- Robinson, J., Witenberg, R., & Sanson, A. (2001). The socialization of tolerance. In M. Augoustinos, & K. J. Reynolds (Eds.), *Understanding prejudice, racism and social conflict* (pp. 73-88). London, UK: Sage.
- Rózycka-Tran, J., Boski, P., & Wojciszke, B. (2015).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4), 525-548.
- Rubin, A., & Babbie, E.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6th ed.). Belmont, CA: Wadsworth.

- Rydgren, J., Dofi, D., & Hällsten, M. (2013). Interethnic friendship, trust, and tolerance: Findings from two north Iraqi ci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8*(6), 1650-1694.
-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Stephan, W. G. (2014). Intergroup anxiet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8*(3), 239-255.
- Stö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222-232.
- Taber, K. S. (2016). The use of Cronbach's alpha when developing and reporting research instruments in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48*(6), 1273-1296.
- Thomae, M., Birtel, M. D., & Wittemann, J. (2016, July 13-16). *The interpersonal tolerance scale (IPT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aper presentation]. *The 2016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olitical Psychology*, Warsaw, Poland.
- UNESCO. (1995).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 Retrieved fro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01803.page=75>
- Verkuyten, M., Adelman, L., & Yogeeswaran, K. (2020). The psychology of intolerance: Unpacking diverse understandings of intolera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9*(5), 467-472.
- Verkuyten, M., & Killen, M. (2021). Tolerance, dissenting beliefs, and cultural diversity.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5*(1), 51-56.
- Verkuyten, M. & Kollar, R. (2021). Tolerance and intolerance: Cultural meanings and discursive usage. *Culture & Psychology, 27*(1), 172-186.
- Verkuyten, M., & Yogeeswaran, K. (2017).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toleration: A roadmap for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1*(1), 72-96.
- Vogt, W. P. (1997). *Tolerance & education-learning to live with diversity and difference*. London: Sage.
- Wang, T. Y., & Chang, G. A. (2006). External threats and political tolerance in Taiwa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3), 377-388.

논문 투고일 : 2022. 05. 03

1 차 심사일 : 2022. 05. 25

게재 확정일 : 2022. 07. 11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Tolerance and Intolerance

Ju-Ri Joeng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factors which can predict interpersonal tolerance and intolerance.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whether tolerance and intolerance would be explained by demographic variables, social desirability, empathy (cognitive empathy and affective empathy), fear of compassion for others, social trust, and zero-sum belief.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445 adults (218 males and 227 females) who completed an online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o control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and social desirabil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olerance was explained by gender,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ocial desirability, cognitive empathy, and social trust. In addition, intolerance was predicted by social desirability, fears of compassion for others, and zero-sum belief. It means that the constructs of tolerance and intolerance are distinct, and different factors predict tolerance and intolerance, respectively.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realistic ways to promote tolerance and to prevent intolerance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hieve co-existence in a multicultural and diverse society.

Key words : tolerance, intolerance, social desirability, empathy, fear of compassion for others, social trust, zero-sum belief